





?! 2019년 신규 입사자가 들려주는 생생한 입사 후기

**Q. 우리 선생님들 2020년에 함께하게 될 미래의 신규직원에게
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**

-  **용O영 선생님** : 기존선생님들의 환영과 축복으로 시작되는 나의 첫 직장생활!
기분 좋은 출발 함께해요!
부산 시청역 도보 3분 신축건물로 사무실 이전계획!(뛰면 1분)
쾌적한 근무가 가능해요~!
-  **이O현 선생님** : 입사 후 날이 갈수록 여기가 너무 좋다는 걸 느꼈어요.
매일 6시 노래 소리와 함께
칼퇴를 하며 워라밸 보장~
1년 차 때 생각지도 못했던 해외여행을 2번씩이나!
이 말이 생각나네요. 야! 너두 다 할 수 있어!
-  **김O연 선생님** : 3500원의 저렴하고 맛있는 구청식사뿐만 아니라
우리가 어떤 민족이다? 배달의 민족이죠.
공공기관이 많이 위치한 연제구, 인근 맛집은 덤!!
배달도 가능하기 때문에 점심 걱정은 사치일 뿐이었죠.
-  **정O령 선생님** : 무엇보다 상담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죠!
우리 기관 상담실에 설치된 안전벨을 누르면 항시 대기하고 있는
청원경찰이 출동해서 늘 든든한 마음이 들어요 (๑ ˆ ˆ ˆ ๑)☆

**2020년, 함께하게 될 여러분들의
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.**

